

## 2002학년도를 준비하는 선거를 돌아보고 2002년 총여학생회에 바란다!

2002학년도 선거 평가 및 2002년 총여학생회에 바라는 내용을 묻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깊은 고민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주십시오!!

당선 인사

- 총여학생회 기지 등을 포함하여 간략하게 당선 인사를 씁시다.

### <I> 2002학년도 선거에 대한 평가를 학우들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I>

1. 2002학년도 총여학생회 선거 때 투표하셨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2. 투표할 때 투표를 하게 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①정책공약 ②한 해 활동에 대한 평가 ③선거운동원들의 활동 ④엔지 잘 할 것 같은 후보자 ⑤기타

3. 선거기간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을 만나보셨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4.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을 만났다면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①강의실 ②도서관 ③식당 ④학내 이곳저곳 ⑤기숙사 ⑥기타

5. 총여학생회 정책공약을 알고 계십니까?

①잘 안다 ②약간 안다 ③모른다

6. 총여학생회 정책공약을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까?

①정책공약집을 보고 ②선전판을 통해 ③유세를 통해 ④기타

7. 총여학생회가 내놓은 정책공약 중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모두 적어주십시오.

8.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의 활동이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학우들을 많이 만나고 적극적으로 정책공약을 알려내는 왕성한 활동이었다.

②공명정대하였으며 대학 선거다웠다.

③선거를 하는지 어찌는지도 모르게 지나갔다.

④후보자들간의 다툼이 너무 치열했다.

⑤기타

9. 올해 선거분위기는 어땠습니까?

①좋았다 ②그저그렇다 ③잘 모르겠다 ④기타

10.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에게 바라는 내용이 있다면 직접 써주십시오

### <II> 2001년 총여학생회는 어땠습니까?</II>

1. 2001년도 총여학생회 사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2. 총여학생회 사업 중 직접 참여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①

3. 총여학생회 사업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십니까?

①직접 만남을 통해 ②선전물을 보고(대자보, 현수막, 화장실 통신문 등에서 표시해주세요) ③홈페이지를 통해 ④기타

4. 총여학생회에서 잘한 점은 무엇이고 부족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올해 총여학생회장 또는 부총여학생회장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6. 어디서 만났습니까?

①강의실 ②도서관 ③기숙사 ④식당 ⑤학내 이곳저곳 ⑥기타

7. 총여학생회가 했으면 하는 사업과 총여학생회가 이런 걸 한다면 참여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써주십시오.

8. 총여학생회에 더 바라는 내용이 있다면 써주십시오

### <III> 학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III>

1. 남녀평등이 얼마나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예전에 비해 많이 실현되었다. ②예전과 마찬가지로이다. ③나아지고는 있지만 불평등한 편이다. ④기타

2. 학내에서 남녀불평등적인 요소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①수업 중 교수님의 말을 통해서 ②학생회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는 과정에 ③취업 준비 과정에 ④수업의 내용 속에 ⑤기타

3. 요즘 주요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①대학 졸업 후의 진로 ②학생회 활동 및 공동체 문화 ③대학생활을 어떻게 보람있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 ④

4-1. 졸업 이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였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4-2. 어느 쪽으로 결정하였습니까?

①직장 ②대학원 ③결혼 ④ 기타

5. 여성문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 여성문제를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①성폭력 ②가정에서 ③취업과정에서 ④대중매체를 통해 ⑤기타

8. 가장 심각한 여성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성폭력 ②매매춘 ③가정폭력 ④일본군 '위안부' 문제 ⑤호주제 ⑥ 기타

9.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와 그에 대한 보복전쟁이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0.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예 ②아니오 ③되든 안 되든 별로 상관없다. ④기타

11. 공동선언 발표 이후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여성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2. 올해 가장 화제가 되었던 여성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기타에 어떤 대학원 입학 및 취업 과정 2개씩 서술하십시오.

②기타에 1.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실천을 하십시오.

2.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떤 내용을 만들어 볼까요?

2) 여성성세에 대한 인식

## 7. 정세인식에 대한 평가

### 1. 정세를 인식하고 분석하는데 있어서

**전반정세 및 여성정세에 대한 인식과 분석은 어떠하였으며 그에 따른 계획 도출에 대한 평가**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공동선언 이행으로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만들어 가는 전체 정세 인식속에서 전여대협의 주체적인 활동에 대한 고민을 높여가는 과정이었다. (6.15 1주년 사업, 6.23전범제관, 두차례의 방북, 통일대축전, 자주교류...)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음모가 더욱 노골화되었던 정세를 인식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투쟁을 민족자주, 조국통일의 문제로까지 연결시키고 반일투쟁을 주체적으로 벌려 낼 데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하지만 전체 정세에 대해 인식은 하였으나 그것을 주동에 틀어쥐고 여성정세와 연결시켜 내는 데에는 아직 추상적인 면이 있다. 그래서 전반정세속에서 전여대협의 구체적인 실천과제, 투쟁과제를 내어 오는데 있어 주체적인 흐름과 계획을 세우는데 한계로 작용했다. (6.15공동선언 실천, 반미자주화...)

여성정세에 대한 인식과 분석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여성정세의 중요성을 각인하고 대략적으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일상적으로 구체적인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고 분석하는 면이 부족하다. 준비정도도 부족하고 여성해방의 상과 경로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서 한계가 나뉜다.

특히 여성민중을 중심에 두고 여성민중, 여학우들의 생활적인, 생존권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의 목적의식적인 흐름과 계획이 부족했다.

그리고 개별적 정세 인식은 하되 조직적인 정세인식과 분석이 진행되지 않고 중앙에 의존성이 강하다.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정세토론과 연구사업 그리고 전체정세와 여성정세를 꿰뚫어보는 중앙에서 기층까지의 전일적인 정세토론의 정형이 필요하다.

기층과 중앙의 단절이 없다

### 2.사업과 투쟁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 (1)2000년 평가와 올해 정세에 입각한 사업과 투쟁이 계획되었는가 (충분치)
- (2)사업과 투쟁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쟁을 흐름에 맞게 진행하였는가
- (3)민감하게 변하는 정세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면 투쟁을 만들어갔는가

2월 한총련 일꾼대회 공간 그리고 간담회 공간들에서 총노선을 핵심일꾼들과 논의하면서 큰 틀로써는 전체 정세에 맞는 사업과 투쟁을 제출하였다.

아쉬운 점은 2000년 평가가 입체적으로 되지 못했던 관계로 고려해야 할 부분(2)이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략과 전술에 있어 구호와 투쟁과제를 설정하는 것이나(2) 여성정세에 입각한 사업과 투쟁을 만들어 나가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 구호제

기본적으로 타격지점 또는 총화지점을 잡고 흐름을 가지고 사업을 벌여 나가려는 노력과 월별로 정세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정세인식과 분석이 일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보니 주동에 서서 상승발전하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나 시기 적절한 사업과 투쟁을 벌여내지 못하고 놓치고 간 한계가 있다. (모성보호법, 반미투쟁, 반일투쟁,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청원운동...)

특히 여성정세에 입각한 사업과 투쟁을 구체적 목표와 흐름을 가지고 만들어가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것은 중앙에서의 고민부족도 있을 것이고 단위에서 제출된 흐름을 단위에서 실정에 맞게 흐름을 만드는 것이나 자체 흐름을 만드는 데에 고민이 부족했던 원인이 있다.

### □. 전반 성과와 한계, 혁신지점

여러 가지 어려운 객관적인 조건 속에서도 7기 전여대협을 힘있게 세워냈다.

비록 전국과 지역의 결의를 모아내는 과정은 부족했어도(?) 받아 안는 학교에서는 기층에서부터 토론과 결의를 모아 내는 과정을 통해 힘있게 세워내는 성과가 있었다.

정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6.23 전범제관과 금강산 대토론회, 그리고 2001 통일대축전에 전여대협 대표를 파견하였다.

또한 올해 중요한 사안이었던 반일투쟁에 있어 단위에서 나름의 자립자활적인 투쟁을 일구는 성과도 있었다.

그리고 중앙에서의 연대사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해였다.

그러나 핵심적인 한계와 혁신지점으로는 사상성과 전략 전술을 구사하는데 부족점이다.

우리사상은 바로 자주적 여학생 운동론이다.

아직 더 채워나가고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민족모순, 계급모순, 성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여성해방 투쟁을 자주, 민주, 통일 투쟁과 함께 잘 벌여나가기 위해서 자주적 여학생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신념화 해야 한다.

주체의 결의가 떨어지는 문제나 사업과 투쟁에 있어 적극성과 주동성이 부족한 문제는 자주적 여학생운동을 얼마나 신념화하고 있는가 하는 사상성과 사업과 투쟁을 심장으로 받아안는 것인가 하는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사상을 잘 구질하기 위한 구체적인 혁신 과제는 바로 전문성 강화이다.

전문성 강화라는 것은 전체투쟁에서 여성해방투쟁을 잘 결합시키는 것 그리고 독자적 투쟁을 잘 벌여나가는 것, 이 두가지를 다 포함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본은 전체정세와 여성정세를 분석력을 더욱 높여야 하고, 중앙에서 기층까지의 전일적인 정세토론의 일상화와 정형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국별 사업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본, 성실, 근면

전략과 전술을 잘 구사하는 것은 의식화, 조직화, 그리고 사업과 투쟁을 잘 벌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혁신해야 할 과제는 장기적 전망을 세우고 상승발전을 흐름을 만드는 것과 그 속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어 오는 것이다.

그리고 의식화, 조직화, 내용과 방도를 참신하고 풍부하게 고민하고 실천하여야 하며 쟁취해야 할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가장 기본적으로 꼼꼼한 점검총화와 중요한 사안의 전일적으로 사업과 투쟁을 집행하려는 결의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대중투쟁 영역 과제 평가

1. 6.15 공동선언을 지지 이행 조국통일 앞당기자!

(공상안 포함)  
(당, -노동영)

- 전반의식화
- 의식화에 있어서 부족
- 시기적절한 의식화
- 통일과 여성 토론 등이 부족
- 6.15 이행에 여성이 앞장서기 위한 고민 노력
- 의식화의 중요성을 깨달아가는 과정
- 연구사업 부족 : 대학 자체 내 흐름이 없다.
- 기층과 중앙이 전일적인 흐름으로 되지 못함
- 여성통일한마당 성사!
- 민족통일촉진운동과 6.15 1주년 - 여성의 역할 잡아나가는 과정
- 자주교류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다
- 여학생회 자체 흐름 못 만들어내감
- 대중적인 흐름 못 만들어내감

→ [공상안 포함] (A)

2. 반미자주화 투쟁 (6.23)

- 반미자주화 투쟁의 내용
- 기존의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입장과 자세?
- 주한미군 범죄에 있어서도 보다 본질적으로

반미투쟁을 하면서 여성영향을 How? 어떤 방향성 and 마음가짐 얻어나가자

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투쟁과 반일투쟁

- 여학단위가 반일에서 선봉에 서야 한다는 인식 있으면서 투쟁을 열심히 하려는 결의!
- 전여대협에서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
- 아쉬움이 많다
-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지 못함, 주동성 부족
- 반일투쟁을 전체화시키는데 부족한 지점
- 역사왜곡과 진상조사 특별법 등 함께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 대중투쟁 흐름을 잘 만들지 못했다
- 대중의 인식과 요구는 높았으나 대중이 참여하고 대중적 항거 주동적으로 만들지 못함
- 정세적 호기, 주동적 틀어쥐지 못함
- 자립자활적 투쟁 만들려는 노력
- 위력적인 투쟁 만들지 못함
- 민족자주로 인식하고 반미자주 투쟁과 연결지어 투쟁하지 못함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투쟁에서의 그 간 성과 한계

23

← [공상안 포함]

4. 여성민중 생존권 쟁취 투쟁, 연대투쟁

- 중앙 연대사업의 성과
- 노동자 농민 반미여성회 등
- 연대 투쟁으로 발전되지 못한 측면 한계
- 통일 투쟁, 반미반일에서만 연대가 되었다

(여학생회비리위반사건 등) → [공상안 포함]

기층연대 부족

- 단위에서 활발한 연대가 없다
- 기층과 바로 연결되면서 성과가 있는 단위도 있다
- 기층마다 각각이 차이가 많다
- 계획성 부족
- (기본계급과의 연대사업에 대한 고민 부족 → 정세이식, 부족나의 관계)
- 모성보호협이라든가
- 여성통일한마당의 성과
- 반일투쟁-정대협과의 연대 성과

5. 반가부장제 투쟁

- 자체적으로 자발적 흐름 만들어진 성과
- 전여대협 전체적으로 고민을 깊이 꾸준한 흐름으로 하지 못했다
- 이 내용들을 더욱 중요 과제로 상충시키자
-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내오자

투쟁방식  
사람에게는 기존의 생각에 맞지 but, 무엇이든 무엇이든  
How?  
↓  
기층나팔기

→ 너무 역사대항적인 말투는 안돼!

상반기 평가

ㄷ. 사상적 영역 평가

<과제>

- 1.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론을 더 보강하고 정립해 나가자
- 2. 자주적 여학생운동 이론을 내것으로 만들어 신념화하자  
여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인생관을 확립해야 한다
- 3. 단위에서의 토론을 활성화하여 학우들과 함께 합의확산을 이루어가자  
여성민중을 중심으로 한 대중관

민중성, 계급성 획득

<방도>

- 1. 한달에 한번 토론과제를 제출하여 토론하자
- 2. 학우들과 자주적 여학생회에 대해 합의확산하자
- 3. 여성단체들과 논의하고 합의하자

###전여대협 증집 평가

- 조직간부 모임에서 자주적 여학생운동 이론정립한 성과가 있다.
- 그러나 전여대협 전체 사상적 운동 큰 진전없음  
(생활, 실천에서 구현되지 못한 것, 전체 일군화 되지 못함)
- 일군들의 학습 체계를 마련하는 문제 중요
- 우리사상을 올바르게 알고 무장하는 문제 또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ㄷ. 조직적 영역 평가

<과제>

- 1. 모두가 자주적 여학일꾼이 되자
- 2. 단과대학 여학생회를 강화하고 기층단위를 건설하자.
- 3. 정견과 계파를 뛰어넘어 전국 여학생운동 단결을 실현하자

<방도>

- 1. 일꾼혁신운동을 전개하자
- 2. 일꾼혁신운동은 전면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집단적,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매달 3대 기풍운동을 전개  
정기적으로 총화, 점검 꼭 진행  
단위 1소모임 운동 전개  
주체를 꼭 세워야  
소모임의 정기적인 운영이 되도록  
소모임의 내용을 여학생회 내용으로
- 3. 공동연대투쟁에 전국여학생운동조직이 함께 하도록 하자

###전여대협 증집 평가

- 전여대협 장기적 전망속에서 올해 조직적 전망을 구체적으로 그려내지 못한 문제
- 전여대협 핵심적 과제에 대해(소모임, 과여부, 단대) 과제를 구체적 방도들을 도출하지 못함
- 대중투쟁과 조직사업을 하나로 고민하고 성과를 내오지 못함
- 전여대협 조직현황 속에서 구체적이고 근본적 문제에 대한 대책, 대안을 마련하지 못함
- 지도사업 정치사업 점검총화에도 큰 힘,주목을 돌리지 않음

→이공계학생운동기회사

전체적으로 나서는 과제.

- 여전히 일군 역량과 조직화 숫자에 있어 많이 미흡
- 조직적, 사상적 전망을 그리고 구체적 과제를 그려야함

토론과제

- 이후 3년간의 전여대협 조직적 전망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총여, 단대, 과여부, 소모임의 강화를 어떻게 가져가야하는가?

- 전여대협의 사상적 과제를 어떤방향으로 실현해 가야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사상을 더 강화하는 방향 또는 전여대협의 전문성 강화 등으로  
구체적 방도는 무엇이 있겠는가?



# 7기 전여대협 운동 평가서

## 0. 들어가며

89년부터 전여대협 건준위를 건설하고 95년 전여대협 1기를 건설하고 올해 7기 전여대협까지 전여대협은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끝이 안아왔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 1. 평가에 임하며

### ◆중요성과 의의

#### 1)정세 발전의 측면에서

여성들의 진출이 많아지고 있다. 여성문제는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올해 호주제폐지운동, 성매매관련, 성폭력 등 여러가지로 여성이 억압과 차별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여대협은 보다 많은 것을 하여야 한다.

#### 2)전여대협 운동 발전의 요구에 따라서

전여대협 건준위 6년, 그리고 전여대협 7년 동안 기나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만 하다. 그러한 상황이지만 전여대협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 3)전여대협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서

97년 이후 여성노동자, 농민의 삶은 아주 처참한 상황에 놓여있다. 전여대협은 민중의 등대지기도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다 해나가야 할 임무와 역할이 있다.

### ◆관점과 자세

#### 1)승리적인 총화를 진행하자

2)성과를 계승하고 혁신지점은 힘차게 혁신할 것을 결의하는 자세로 평가를 진행하자

3)전여대협의 전망성을 그리면서 평가에 임하자

4)전여대협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인식하고 평가에 임하자

대중투쟁? 주체적관점?

## 2. 총평

1. 7기 전여대협을 힘있게 건설하였다. 그 어느 해보다 높은 정세의 요구성을 받아 안고 많은 사업과 투쟁을 계획하고 벌여나가는 활동을 하였다.

2. 정세 인식에 근간해 기층의 자립자활적 투쟁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세인식에 있어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며 투쟁을 전국적인 차원, 큰 흐름으로 만들어가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3. 사업과 투쟁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한계 지점을 노정하였다. (플기어나 목돈, 한몸이지) 기층 의견수렴의 과정

(역량타산의 문제)

(선후차의 문제)

4. 상층연대의 일정한 성과를 마련하였다.

성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여대협의 역사를 계승하고 혁신하는 7기 전여대협을 건설하였다는 것이다.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사업과 투쟁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벌려나가려는 노력을 진행하였다

정세에 기반한 사업과 투쟁을 벌여내었던 모범이 있었다

기층의 자발적인 사업과 투쟁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반국투쟁, 반일투쟁

-매주 기활, 연대 주점, 상층연대의 일정한 성과를 마련하였다.

-여성학 연추회의에서

-총회, 출범식, 여름 수련회, 여성통일한마당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자회견

한계

정세인식에 있어

-정세 인식에 있어 부족점

-여성정세에 대해 빠른 파악이 되지 못하고

-조성되는 정세에 따라 근간한 사업과 투쟁 계획이 부족

정세에 맞게 사업과 투쟁을 기민하게 제출하는데 부족지점이 있었다

사업과 투쟁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층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1년을 관통하는 흐름으로 제출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전략과 전술을 올바르게 구사하지 못한 측면 → 어!!

-점검 총화에 있어 부족지점

-대중의식화 조직화 에 있어 부족한 지점

대중투쟁이야

## 3. 세부 평가

### Ⅰ 대중투쟁노선과 대중 투쟁 평가

#### 1. 총평

①

②

③

투쟁으로 진출하고 투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투쟁 중심적인 1년이었다.

평장하 많은 투쟁과제들을 어떻게 여학단위에서 풀어낼 것인가 고민하였다

사색의 깊이가 총체화되고 그러는데 부족한 측면이 존재한다.

지속적인 1년의 흐름으로 만들어내지 못하였고 기층과 전일적으로 만들어가는데 부족한 지점이 존재한다.

유리능력지정 ↑, 전문성

#### 2. 과제별 평가

##### 1)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

①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전여대협 차원으로 여러 사업과 투쟁을 만들어내고, 여성단체 여성민중들과 함께, 사업과 투쟁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기울였다.

토론회, 주점 등

- 6.15 이행을 위한 여성들의 힘으로 하기 위한 여성들의 공동의 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졌다.

여성한마당의 성과, (민중통일축진운동과 6.15 1주년 기념식)

② 실질적인 방법을 통해 남과 북의 여성이 함께 모여 공동선언 이행 투쟁을 결의하는 과정이었다.

자주교류의 성과적인 측면

③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대중적으로 알리려고 여학수 대중을 공동선언 실천으로 이끌어내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의식화 측면에서

내용 생산하는 과정에서(총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시기의 문제, 전일적으로 되지 못한 문제, 여타 신이복바로알기 등과 함께 진행되지 못한 문제

의식화의 중요성을 깨달아가고 있다.

-대중적 흐름의 측면에서

- 대학과 기층 여학생회에서 자체 흐름이 형성되지 못하였고, 대중적으로 흐름을 잡아나가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
- 공동선언과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 보다 여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의식화를 진행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 여성과 통일, 공동선언 이행과 여성의 삶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내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 주제들부터 공동선언의 의미에 대한 깊은 사토들이 부족한 측면이 존재한다.
- 기층과 중앙의 전일적인 흐름으로 만들어가지 못한 한계
- ④ 신이복여성바로알기, 국보철 사회민주화 투쟁 등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제반 준비조건을 높여나가는 투쟁에 부족함이 있었다.

- 2) 미군범죄·기지촌 문제 해결 및 반미자주화 투쟁
- ① 그 어느 해보다 반미투쟁이 활발하게 총체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시간과 투쟁을 했던 투쟁과제이기도 하다.
  - ② 전미투위의 성과 - 전여대협 대표의 파견
  - ③ 여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다
  - ④ 총노선에 제출된 방도가 다양하게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집행에 대한 계획이 꼼꼼하게 정세의 요구에 맞게 짜여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실지 역량이 부족한 측면인지 계획을 그대로 짜지 못한 문제인지 모르겠다.** 중앙에서 계획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하고 기층의 현실과 준비정도에 맞는 사업과 투쟁이 계획되고 제출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 ⑤ 미군범죄 해결과정, 미군범죄 희생자 추모 사업 (11.18.19.20)
  - ⑥ 기지촌 문제에 대한 평가, 한미행정협정 폐기 부분

그 어느 해보다 반미투쟁이 활발하게, 총체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여학단위에서 그 동안 해왔던 기지촌 문제를 반미와 결합시켜 투쟁해왔던 과정에서 스스로 갈피를 제대로 잡지 못한 측면이 있다.  
 반미투쟁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기지촌 문제를 바라본 경향이 일면 존재한다. 그러나 기지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미와 주한미군 철수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식화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그려내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내용적으로 반미투쟁을 왜 해야하는 것인지 미제국주의가 한반도 이남에서 여성억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밝혀낼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기지촌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부분에 착목할 필요가 있었다. 당장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과 생활 문제 등. 그러나 이 문제 또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해결담안이 될런지는 더 사색해보아야겠다. 여학생으로서 우리는 투쟁으로 그들의 삶을 함께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어떤 투쟁을 할 것인가? 기지촌 여성문제를 어떤 입장과 자세로 바라보며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주한미군 범죄 측면에서는 어떠한가?

- 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투쟁과 반일 투쟁
- ①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투쟁, 정세의 요구가 상당히 높았다. 선봉에서 투쟁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 역사왜곡과 진상조사 특별법 흐름을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하는 아쉬움 든다.
  - 주동적 자체 부족한 점
    - ② 대학에서 자발적인 흐름과 투쟁을 만들어나갔다
    - 역사왜곡 반대와 교과서 불채택에 있어서도 그러했고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 조선대 상대 여학생회 자체적으로 나눔의 집을 방문하고 수요집회를 참가한 모범
    - ③ 대중투쟁 흐름을 전국적으로 만들어가지 못한 것과 위력적인 대중투쟁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크다.
    - 시기적절하게 제출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 대중의 지지와 분노가 엄청났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분출하게 만들지 못했다.
    - ④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실질적 해결의 노력 많이 부족하였다
    - ⑤ 반일 투쟁을 전국 기층 대학에서 펼쳐내게 만들어내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 민족자주로 인식하면서 반미자주 투쟁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는 과제였는데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였다.

역대투쟁의 성과? →

4. 여성민중 생존권 쟁취 투쟁과 연대 투쟁
- ① 중앙연대사업의 성과가 일정 존재한다.
  - **여성학연추위의 및 여성통일한마당과 노동자농민 조직과의 지속적인 연대** **정대협과**
  - **일상적인 연대 투쟁을 벌이는 단계로 발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 ② 기층에서의 일상적이고 정치적인 연대에 있어 부족한 측면이 존재한다.
  - 그러나 모범은 있다. 기층에서 만들어낸 연대모범의 성과 총화하자!! (비정규직 여성생각방, 야구대우) **반미, NY 3.15**
  - 계획이 부족하였다.
  - ③ 기본계급과의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모성보호법 투쟁 등. **여성이유제.**
  - ④ 사안별 (여성단체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러한 단체들과의 연대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 또한 과제로 남는다.)

5. 반가부장제 투쟁
- ① 고민이 높고 **이중 차별적인 흐름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졌다.**
  - 의식화 진행, 다양한 형태와 방도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 여성문화제 등을 통해서
  - ② 전여대협 차원으로 반가부장제 투쟁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존재한다.
  - **질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일정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고 역량탄산과 집중집중을 잘 찾아내지 못한 한계 또한 있다.**
  - ③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기층에서 보다 자립자활적 투쟁을 만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 ④ 남성중심적 문화, 운동사회내 가부장성에 대한 부분, 양성평등 문화,
  - ⑤ 반성폭력 학칙 제정운동, 호주제 철폐, 성매매 방지법 및 성매매 근절 운동, 다양한 요구들이 넘쳐난다

전여대협 여학생 운동대중화 측면에서  
 1. 운동대중화 현황과 총평  
 현황은 어떠한가?  
 총평을 해보자면?  
 → **각단위마다. 기층은 민중투쟁으로 노조(1)나(2)**

2. 대중의식화
- ① 지주적 여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의식화하는데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 ② 사안별 의식화는 나름대로 진행이 되지만 총체적이며 1년의 흐름을 가지고 서로 연관성있게 의식화하는데는 부족한 측면이 많이 존재한다.
  - 민족애, 민주주의, 계급교양, 여성해방의 측면에서
  - ③ 여학우들의 특성과 정세에 맞게 여학생회의 현황에 맞게 다양한 형태와 방도로 실속있게 의식화를 진행해야 한다.

3. 대중조직화
- ① 해산인상. 발동. 학생, 시도. 노조
  - ② 가능성
  - ③ 대중사업
4. 대중투쟁의 형태와 방법에 대한 평가  
 [3] 3.15. 사상영양

4. 미치며  
 → 내내투쟁의 연결.  
 (중앙운동 → 3, 4번...)

● **가부장제 (지주사업 단위의 성차별 완화추진과 1) 비정규직,**

# 7기 전여대협 평가를 잘 할 데 대하여

- 7기 전여대협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은 8기 전여대협을 만들어가는데 밑거름이 됩니다.

- 1. 사업과 투쟁에 있어서
  - 계획 수립 과정
  - 집행 점검 총화 과정
  - 실무적인 부분
  - 일꾼들에 대한 정치사업

- 2. 여학생운동 대중화 측면에서
  - 요구성
  - 목표 및 계획
  - 집행과정(실행과정)
  - 평가 및 과제 - 전체 운동 흐름과 맞물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자

- 3. 조직체계 : 일사분란한 조직운영 체계 건설, 운영 문제
  - 중앙상임위 - 올해 과정 평가, 위상과 역할은 어떠한가?, 이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 중집회의 - 효율성, 준비성, 규율성 *국면사업 75% (영향) 해명생산*
  - h 회의에 임하면서
  - h 조동회의 결할 평가 - 내년엔 h 국회의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긍정성 여부 평가
  - 전국회의 - 조직국 회의, 연사위, 정책회의, *검정 #*
  - 지도사업 평가 - 내용과 형태를 모두

- 4. 사상운동의 측면에서 - 자주적 여학생운동 확산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진행하였는가? (일꾼들 중심으로)

- 내용적으로
  - 기층(여성학 학습과 사상학습 진행정도 총화, 자료집 활용 정도 총화)
  - 중양(학습 총화,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상적 흐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 형태적으로
    - 기층과 중양 모두 : 일상적으로 진행하였는가, 학습의 방도는 어떠한가?(강연, 토론, 발제 등)
    - ~~~~~ 뜻이 제수 해프팅. ① 가져올 보강정점. ② 심화하 ③ 하위들과의 협의 해프팅.*

- 5. 대중 의식화, 조직화, 대중투쟁 - 대중에게 자여론 확산을 어떻게

- 6. 전반 성과 한계 혁신지점, 올해 총적 과제 및 목표에 기반한 평가

- 7. 기층과 함께 토론할 것

- 0 올해 총여학생회 운동 평가

- 여학생운동대중화 측면의 총화
- 사상운동 측면에서

- 대중의식화, 대중조직화, 대중투쟁-학우들의 의식 흐름이 어떻게 상승발전하였는가, 학우들의 참여도는?
- 학교의 전반 성과와 한계

- 전체 평가

- 전여대협에서 진행한 대중투쟁 관련한 평가
- 대중사업 관련 평가 - 총회, 출범식 등
- 전여대협 사업, 투쟁과 단위에서의 사업 투쟁의 일치성을 어떻게 만들어내었는가?
- 지도사업 평가

*7기 전여대협의 총화/평가*  
*7기 전여대협의 총화/평가*  
*7기 전여대협의 총화/평가*

0. 위대한 힘 빛나는 제창/찬양권의  
 이념을 총화하라  
 1. 과점하자세.  
 2. 200여년 민족민중들 H이 무수한 투쟁(총화)의  
 (총화, 방향)  
 3. 7기 H 운동 방향 및 총화  
 4. 7기 H 운동 방향 및 총화  
 - 대중투쟁 논쟁, 대중투쟁 평가  
 - 운동대중화  
 - 통일단결, 연대연합.  
 - 조직화 방향

*2기 전여대협 (기층운동기)*

# 전여대협 운동 평가 및 전망

## 1. 전여대협 현황과 과제

여학생운동이 여학우 대중에 기반해있지 못하다.

### 1) 대중운동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학생운동이 자기의 정책을 가지지 못해 전문성이 떨어지며 대중운동에 대한 전망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여학생운동은 기존 학생운동과는 달리 그 내용이 여학우들에 기반해야하지만 여학우들의 삶과 처지에서 시작하는 여학생운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그 정형이 부족하여 학우들의 삶과 인식은 변화하는데 그 변화의 정서와 의지에 따라가지 못하고 이전의 정형을 답습하는데 머무르며 여학생운동만의 참신함을 창조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대중의 의식을 높여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 혹은 여성문제에 있어 사안적 다양성에 머무르는 수준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일꾼들의 대중관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여학우 대중을 여학생운동의 주체로 세워내는 것에 자주적 여학생운동의 본질과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꾼들은 여학우들을 만나지 않고 사업과 투쟁을 여학일꾼들의 판단으로 논의하고 결정하고 있다. 게다가 대중사업과 투쟁은 실제로 여학우들을 주체로 세우는 과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중사업과 투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중운동 뿐만 아니라 조직사상운동에까지 그 영향이 있다. 즉, 여학우들을 삶의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개인적 윤행으로 바라보게 되는 현실이 나타난다.

### <과제>

여학생운동만의 정책을 생산하고 전문성을 담보해야한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망 참고)

-여성정세에 대한 분석력을 점차 높여가야 한다. (!) How!

-사업계획서의 중심이 바뀌어야 하며, 그 내용과 방식에서 혁신해야 한다.

-학내에서 여학생운동을 얘기하는 것이 여학단위 뿐이기 때문에 여학단위는 더더욱 자민통에 복속되는 것이 아닌 여성해방이라는 큰 틀에서 투쟁과제를 잡아나가야 한다.

-여학우들의 수준과 처지, 흥미에 따른 좀더 다양한 내용과 틀(형식)에 대한 고민을 제출해야할 것 이다. 여학우들의 요구! 필수!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단위 일꾼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생산해 나갈수 있게 하는 지도의 틀을 마련해야한다. 이제까지 진행해온 자주적 여학생운동 토론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밑에서 얘기하겠지만 실제 대중의 처지와 요구가 어떠한지에 대한 것을 자기기준이 아닌 학우들의 기준에서 사고할수 있도록 대중을 지속적으로 만나가야 한다.(★)

대중운동에 대해 큰 틀에서 전망하며 일관성있게 지도해야 한다.

현재 대중운동은 몇가지의 투쟁과제나 사업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각 대학에서의 그리고 전체 여학생운동에서의 대중의식화, 대중조직화, 대중투쟁에 대해 큰 틀에서 전망해야 한다.(★)

일꾼들의 대중관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꾼들이 여학우 대중을 주인체로 생각해야 대중운동이 편향없이 발전해나가기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일꾼들의 대중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중에 대한 두려움을 벗고 대중이 아닌 개인중심의 사고를 극복하기 위해 학우들을 만나는 정연한 체계를 세워야 한다. 여학일꾼들의 내용을 해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꾼들의 대중관을 높이기 위해 대중을 만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중심으로 총화하고 지도해야 한다.

대중누누누리.

또한 대학간의 모범이 총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학생운동은 현재 그 정형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기에 학교별 편차가 심하고 처음 여학생운동을 접하는 일꾼단위의 경우 여학생운동의 감을 잡는 데만 오랜 시간이 들고 있다. 하지만 대학 개개별로 보면 대학 특성상 혹은 일꾼들의 활동의 결과로 특정한 부분에 장점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있다. 현재 여학생운동이 그 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모범들을 총화하고, 그 모범이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으며 어떤 과정이었기에 가능했는지에 대한 세부적 사항들까지 총화되어, 모범이 일반화되는 과정이 중요하다.

여학생운동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힘을 모을 수 있는 큰 투쟁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여학생운동은 그야말로 투쟁해야할 사안이 많다. 그러나 이 투쟁이 학교 울타리 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학교단위가 투쟁을 적극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데 큰 원인이 있다. 또한 요구되는 정세의 투쟁을 여학우들의 처지에서 풀어가기 위한 고민이 부족한 데도 원인이 있겠다. 그리고 하나로 힘을 모을 수 있는 투쟁의 사안을 제대로 잡지 못했던 것도 큰 원인이었다. 이 후에는 더욱 여학우들의 처지에서 출발할수 있는 투쟁의 내용을 가지고 규모있고 일관성있는 투쟁을 벌여나가야한다.

전기가 밤이면  
나도 낮이면  
운동해야

또한 전여대협이 이제 전체 여학생운동의 대표체로 설수 있도록 준비를 시작해야한다.

여학생운동가 적다고 항상 말한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여학생의 처지에서 여성운동을 하고있는 이들은 생각보다 여러 학교에 산재해 있다. 그것이 자주적 여학생운동의 이름이든, 여성주의의 이름이든간에 말이다. 그러나 그 역량이 큰 힘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서로가 맞느니 틀리니 하는 싸움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는 전여대협이 '전여대협'답게 설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한다.

어떻게 할것인가? 올해 국립대투쟁본부를 비롯한 각종 공동투쟁에서 교훈을 찾아야한다. 물론 그 속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문제지점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상과 정파를 떠나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할수 있는 공동투쟁을 벌여나가야 여학생운동은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전여대협에 소속되어 있는 단위들이 전여대협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투쟁해나가는 것이다. 또한 전여대협은 그 강령과 규약의 폭을 넓히고 문을 열어야 한다. 또한 처음부터 모든투쟁을 함께 할 수는 없기에 아주 작은 사안이라도 공동으로 투쟁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하여 공동의 이름으로 학내외에서 투쟁하고 공동의 이름으로 투쟁의 성과를 쟁취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여대협이 공동투쟁을 먼저 발기하고 이끌어가는, 먼저 끌어당기고 견인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 2)조직운동

조직운동에서 핵심적인 것은 당연히 '사람사업'이다. 현재 대부분의 단위에서 이 '사람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해 세심하지 못한다. 그 이유가 있다. 그 사람의 다양한 처지를 깊이 아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해 일반적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총화 및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사람의 고민과 요구를 중심으로 사업하지 못하고 사업중심의 일회성 사람사업을 하는데 무엇보다 큰 원인이 있다하겠다.

두 번째로는 사람사업을 해도 인간적 친밀감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수준과 처지, 흥미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형식을 마련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그 본질적인 문제이다. 마지막으로는 여학생운동이 주로 과에 기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금방 지적한문제는 당장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과에 기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과에 대한 사업을 해야하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여학생운동은 '소모임운동'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그렇다면 현재 소모임 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무엇보다도 소모임 내용 자체가 진부하다. 현재 존재하는 소모임의 대부분은 '여성문제연구회'이다. 그리고 소모임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여성문제연구회'식의 내용이다. 이런식의 내용을 가진 소모임에 들어오는 새내기들은 어렸을 때부터 심각하게 차별받고 자라는 경우이거나 관심을 없는데 인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자의 경우에도 '여성문제 연구회'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만큼의 내용과 활동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으로는 자기요구로 들어오고 활동하는 사람이 점차 없어진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는다.

둘째, 그 형식 또한 진부하다. 학습하고 조그만 활동하다가 총여 대중사업할 때 평가를 일회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것 또한 첫째에서 얘기했던 이유로 자기요구를 가지고 문제이다. 그러다보니 새내기가 직접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역할을 높여주는 방식 셋째, 대중과 함께하는 자기활동이 없다. 단순히 내부적 동아리 활동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더라도 일회성 사업이거나 자족적인 사업일 뿐이다. 소모임이라는 것으로 대중을 만날 수 있지 못하면서 소모임의 내용이 점차 진부하게 느껴지게 되고 사람이 안 크는 것이다.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준, 흥미에 대해 정확히 총화는 사업을 강제해야 한다. 핵심일꾼들의 총화력을 높여주기를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들 때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일꾼이 되는 것이다. 일꾼에게 있어서도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을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친하다는 정도가 아닌, 생활이 결합되고 기쁨과 슬픔이 결합되는 인간적 유대감이 만들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또한 다양한 수준과 처지,흥미에 따른 내용과 형식의 교양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한다. 친원일률적이고 일회적인 교양의 내용과 형식은 주로 '통밥'에서 나온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또하나의 형식적 틀을 가져서는 안되겠지만 내용상 수준상 다양한 내용을 포괄한 교양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덧붙여 일꾼들이 즐겁게 살아야 한다. 몸이 고되고 정신이 힘들다고 여겨지면 사람이 주위에서 떨어져 나간다. 일꾼들이 즐겁게 활동할수 있는 신념을 만들어주는 것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혹은 스트레스를 풀수 있도록 여려방도를 동원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소모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그 내용에 있어 전문화된 여성 소모임의 내용으로 전환해야한다. 새내기들이 처음 들어와서 '한번쯤 들어봐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여성문제 연구회'와 같은 포괄적이며 관심을 유도하기 힘든 주제가 아닌, 명확한 영역으로 정해져 있으며 새내기들이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은'이라고 생각해보았던 주제를 선택해야한다. 예를 들면 여성기행동이라 정도 제격일 수 있겠다.

둘째, 대중과 함께 하는 정기적인 자기활동을 잘 잡아야 한다. 대중과 함께 하는 활동의 내용은 학습했던 것은 발표하는 수준이어서는 안된다. 학습은 내 부적으로 단련시키는 사업이고 학습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문화에 관심을 돌리는 것에 소모임이 선두에 있어야한다.

특히 새내기들의 정서와 의지에 맞게 사업하기 위해 새내기들이(소모임 뿐만 아니라 전체 새내기들)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에 관심이 있는지, 새내기들이 관심을 집중하는 방식은 어떤것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그리고 새내기들이 직접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것을 아주 많은 학습들이 아니라해도 일정한 대중을 끌 수 있는 매력을 가진 것으로 외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내용과 형식일 때 소모임의 새내기들도 그것에 매력을 느낄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역할을 부여주어야 한다.

### 3)사상운동

핵심적으로 두가지이다.

무엇보다 <sup>①</sup>실력,전문가가 되어야 할 일꾼들의 학습수준이 너무나도 낮다. 자기정체력이 부족하고 이전의 여학생운동을 답습하고 있는데는 이러한 현상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특히 여성학에 대한 학습과 대학실정에 맞는 토론, 그리고 여성문제에 대한 사색을 강화해야한다. 이렇게 학습할 때만이 현재 여학생운동의 진부함을 벗을 수 있으며 여학우들과 조금이라도 함께 할수 있음을, 그 결박성을 일꾼 모두가 가지고 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앞서 얘기했듯이 다양한 수준에 대한 상상교양의 내용적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우익 사색*

### 2. 전여대협 상층활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

#### 1)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와 전망

우선 여성정세에 대한 정세분석이 미흡하며 여성정세 분석과 투쟁과제 도출에 있어 아직 위안부,기지촌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도식적으로 분석 및 도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여대협의 처지에서 출발하는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학생운동'이라는 전략에 있어 주변고리일 뿐이다. 그리고 정세전망을 비롯하여 상당부분 한총련 사업계획서에 의존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결과를 낳고 있다.

두 번째로 기층의 요구에 맞지 않는 내용과 방식이다. 이는 기층을 구체적으로 총화하지 않는 토대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때문이다. 사업과 투쟁에 있어 실제로 기층에서 벌이고 있는 성폭력 규제학칙 제개정 투쟁이나 반가부장제 투쟁, 그리고 실제로 학우들과 함께 할수 있는 내용과 방식 등에 대한 총화와 연구가 미흡하여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결사관철하기에는 그 내용과 방식이 진부한 실정이다.

셋째, 사업계획서에서 여러학교의 모범이 제대로 총화되지 않고 있다. 모범이 현상적으로 총화되거나 사업계획서에 명시됐던 투쟁의 내용에서의 모범만을 중심으로 총화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지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여성정세에 대한 분석력을 점차 높여가야 한다.

물론 여학생운동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정세를 바라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정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여성문제의 사안사안들에 대해 정확히 알며, 이를 연속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전망을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 여성단체들의 정책을 숙지하고 여학생운동의 입장에서 제해석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여성정세에 대한 큰 움직임과 흐름이 파악될 수 있으며, 어디선가 갑자기 튀어나오는듯한 문제거리가 아니라 미리 준비되어 변화하는 정세를 빠르게 판단하고 기동력있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업계획서의 중심이 바뀌어야 하며, 그 내용과 방식에서 혁신해야 한다.

물론 여성해방의 큰 과제속에서 자주민주통일이라는 것은 현재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실제 여학우들의 삶의 처지와 현실을 깊이있게 고민하고 그에 출발하는 내용을 마련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이제는 여러 투쟁사안을 제출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여학우들이 살아가면서 직접 부딪히지만 투쟁하지 못하는 대학에서의 남성중심성(문화,제도등등)에 대해 여학우 및 남학우들의 근본적인 인식을 들추어나가며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하는 것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자민통이 중요한 투쟁인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학생운동 단위들이 아예 집중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학내에서 여학생운동을 얘기하는 것이 여학단위뿐이기 때문에 여학단위는 더더욱 자민통에 복속되는 것이 아닌 여성해방이라는 큰 틀에서 투쟁과제를 잡아가야 한다.

또한 현재적 내용과 방식으로는 여학우들에게 공감을 사기 힘들 수밖에 없다. 여학우들의 처지와 현실이 거기에 중심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학우들의 수준과 처지, 흥미에 따른 좀더 다양한 틀(형식)에 대한 고민을 제출해야할 것이다.

셋째, 학교간의 모범을 상시적으로 총화하고 이를 일반화시키는 틀을 가져야 한다.

앞서 대중운동 과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범들을 총화하고, 그 모범이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으며 어떤 과정이었기에 가능했는지에 대한 세부적 사항들까지 총화되어, 모범이 일반화되는 과정을 일정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 2)지도하방활동에 대한 평가

물론 간부가 적어 객관적 한계가 존재하는 문제가 매우 크다.

그러나 간부들의 지도하방에서의 활동에서는 무엇보다 단위 및 단위 일꾼들을 중심으로 두고 사고하지 못하는 편향이 드러난다. 대학의 경험을 비추어왔을 때 하방을 오면 사업계획서의 결사관철 여부와 단위의 조직사상대중운동의 현황정도에 그총화가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단위가 어떤 고

민을 하고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총화되지 못하며, 여러 단위가 가지고 있는 문제지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함께 고민하는 것조차 힘든 실정이다. 즉, 개별적 지도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지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전여대협 간부들을 더 많이 배출하는 것이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전여대협 간부들이 단위일꾼들에 대한 총화의 중심과 방도에 대한 제고를 통해 사람사이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단위의 핵심일꾼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표자의 활동을 총화하고 대표자의 신념과 역할을 높여갈수 있도록 대표자를 만나고 보좌하는 것을 중심으로 총화하고 지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전여대협 간부들이 모든 학교를 그렇게 지도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단위 대표자분들과 지도 및 하방 활동에 대한 토론과 협의속에서 시작해야할 것이다. 방도적 측면은 핵심적으로 조직사상대중운동에 대한 핵심총화대학이나 \*\*대학과 같은 것이 고민이 될 수 있겠으나 이후 더 고민해보았으면 한다.

#### 3. 전여대협에 대한 우리대학의 관점과 자세에 대한 평가

기간 여러고민들과 문제인식을 가져왔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했다.

이후 전여대협 혁신의 문제를 실천적 모범으로서 제기함으로써 이러한 소극성을 탈피하여야 한다 //

#### 4. 간부추천에 대해-대학 추천서와 간부결의서로 대신함.

## 부경여대협

### 1. 부경여대협 건설에 대한 상

부경지역에서 여학생운동을 총화하고 책임지는 단위가 부재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부경지역 여학생운동의 침체가 더욱 심화되었다. 현재 부경지역의 많은 단위가 자기 정책력이 없고 일꾼계생산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기에 정책적인 담보를 하는 단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각 대학의 모범을 전파하며 부경지역 여학생운동을 고루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단위가 있어야 한다. 즉, 부경지역 여학생운동을 총화하고 책임지는 단위를 반드시 세워야한다.

부경지역 여학생운동을 총화하는 단위로서는 당연히 부경여대협이라는 조직체로 꾸리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경여대협을 세우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는 생각해보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여대협이라는 조직체를 부경지역에 세워내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첫째, 각 대학들의 상황이다. 현재 부경지역에서 총여학생회가 세워진 단위는 동아대,경상대,울산대 3개대학뿐이며, 3월선거를 하는 단위는 창원대, 부산대이며, 부경여대협에 속하지 않았지만 해양대도 3월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렇듯 각 대학들의 현실은 선거를 하지 못했거나 선거도 겨우 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간부를 배출하고 여대협 운동을 받아안을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단위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여대협 조직체를 다소 달리, 말하자면 의장활동을 다소 다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대협 조직체를 꾸리는 것은 현실상 무리이다. 실사 의장활동을 학교와 여대협 둘다에 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둘다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조직생활도 내실있게 꾸리지 못하면서 의장활동은 그 역할을 찾지 못하고 1년을 지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할수 있는 일꾼도 현실상 거의 없다. 결국 여대협을 결의한 간부의 경우, 어느 조직생활에서도 제대로 묶이지 못하면서 결국 지쳐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 자명하다. //

### 2. 부경여대협 건설에 대한 논의의 상

부경지역 여학생운동의 핵심일꾼들(차기 국장까지)이 한자리에 모여 솔직하게 총화하면서 전체 일꾼들의 고민으로 부경지역 여학생운동의 전망과 조직체 및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내어야 한다. 각 대학별로 진행하는 것은 부경여대협 건설에 대한 대학별 관점과 입장과 대한 대학별 토론이며, 그 다음의 얘기 모두는 함께 모인 자리에서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구체적 논의의 내용은, 부경여대협이 현재 어떠한 상황인가에 대한 이야기(잘 모르는 간부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과 과거 및 현재 부경여대협 건설을 둘러싼 각 대학/단위/일꾼들의 솔직한 생각 총화,대학별 입장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는 새로이 결의하는 부경여대협 간부 결의자가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